

도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안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 마련... “광고수익 발생시 검직허가 받아야”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담은 공문을 지난 15일 발송했다.

이번 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 △유튜브 활동 기본 방침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유튜브 활동 검직신고 및 허가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활동(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은 금지된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검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의 광고 계약 파트너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명의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직허가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는 없다.

다만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검직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했음에도 검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수는 바로 확인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전북대와 손잡고 고교생 1박2일 토포캠프 열어

민주시민의 주요 자질로 토론의 역량이 부상한 시대에 전북도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손잡고 토포캠프를 열어 화제다.

이번 토포캠프는 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공동으로 고등학교생들의 토론 능력 및 교사의 토론 교육 역량 강화 목적으로 개최했다.

원광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토론교육에 관심 있는 도내 19교 35개 동아리가 모인 ‘전북토론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토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와 손잡고 올해로 3회째 고교생 토포캠프를 연다.



순창중앙초등학교 도서관 ‘책놀이터’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꿈과 희망 키우는 지혜의 숲으로!

순창중앙초 도서관 ‘책놀이터’ 개관... 전시·체험·학습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

순창중앙초등학교 도서관 ‘책놀이터’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관한 ‘책 놀이터’ 도서관은 독서와 함께 전시·체험·공연·학습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독서공간은 물론 자료열람 코너, 전시 공간, 공연무대, IT기기를 두루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중앙초는 단순한 독서활동 위주의 기존의 도서관 개념에서 탈피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선보이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도서관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다.

약 10개월여의 노력 끝에, 기존 3층에 있던 도서관을 1층 길목으로

이전하며 공간을 확충했고, 중앙 현관은 갤러리형 오픈 도서관으로 변신해 독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책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책 놀이터’란 도서관 명칭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지역주민과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뜨거웠다.

새롭게 단장한 책 놀이터를 찾은 학생들은 얼굴에 연신 환박웃음을 피우며 도서관 이곳 저곳을 살펴 보기에 바빴다.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이 곳에 오니 책이 저절로 읽고 싶어진다. 여기 저기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 책을 읽을 수 있어 재미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개관식에 참석해 “새로운 도서관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혜의 숲이자 상상의 놀이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했다고 전했다.

또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래떡’ 동화를 들려주며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

순창중앙초 장명순 교장은 “책 놀이터 라는 공간은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와 배움의 풍경,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을 변화시키고, 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문화를 새롭게 유도할 것이다”며 “우리는 이 공간이 가져올 교육의 변화와 학교문화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동남아 5개국 언어 특강 캠프 개최

흔히 접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 주요 5개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채로운 여름캠프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개강해 2주 동안 50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등의 강의와 함께, 일곱 차례의 지역 이해 특강과 세 차례의 영화상영 등이 진행된다.

이번 여름캠프는 전북대가 유치하고, 부산외국어대에서 7명의 강사진과 교재를 지원하는 방식의 호·영남 협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동남아 언어를 방학 중 집체교육 하는 방식의 캠프는 처음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북대 동아시

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주임교수 전제성)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에서도 동남아 지역 이해 특강 강사진을 자비로 파견했다. 평소 만나볼 수 없는 강좌에다 대학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무료 교육으로 진행되다보니 캠프에 150명의 수강생이 몰리는 등 인기도 좋다.

전북대 학생 외에도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에서 40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도 캠프에 참여했다.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국제 인증 EFR 자격증 취득 교육 시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국제인증 EFR(Emergency First Response) 자격증 취득교육'을 응급구조실습실에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FR 자격증은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자격증으로 이번 교육은 자동차로 못학과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FR 자격증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 시스템 / 응급처치 / 가슴압박소생술 / 제세동기 사용법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취

업역량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들을 해마다 배출하고 있다.

백일현 교수(자동차로못학과)는 “이번 교육은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A(최우수)등급 획득, KOICA(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선정(5년 연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대학 사업선정 등 글로벌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외교 역량강화 시범사업 ‘우수’

지난해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역량강화 시범대학 사업’에 선정됐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2년 더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내 공공외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외교법 및 기본계획 시행 등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운영됐다.

전국 7개 시범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는 지난 1년간 공공외교와 관련한 4개의 교과목을 운영했고, K-MOOC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또한 베트남 코리아페스티벌과 공공외교학술세미나를 열고, 공공외교 기관탐방을 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북대는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이 사업을 2년 연장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공공외교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외교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여 공공외교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기존 사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안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북대는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K-MOOC 리모델링 △오프라인 정규강좌 4개 운영 △공공외교 개론서 제작 △공공외교 세미나 △공공외교 기관탐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